



천주의성요한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VOL. 6

2016년 가을호

발행인:이광수 / 편집인: 김안순, 유은희, 정요안 /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태봉로 32 / TEL 062-510-3071~2 / FAX 062-510-3151

## 가을로 가는 길

이명희 / 자원봉사자

길 위에 깔려 있는 난만한 생각  
혈관을 관통하며 녹음처럼 깊어졌던 상흔들이  
작고 가난한 희망 모아 가을로 가는 길  
울컥 커져버린 잎 새들의 함성 소리  
더 이상의 서두름과 채근함은 필요 없다는 듯  
절정을 이룬 숲 바람결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딱딱하게 박혔던 웅이도  
이제는 빼어내야 할 때  
한 박자 더디게 가을로 가는 길

뜨거운 태양 머리에 이고 허방 쪼던 마른 땅에  
축복처럼 환하게 핀 측부쟁이 꽃  
수줍게 얼굴 붉히며 숙정 드러냅니다  
진중일 달구어진 햇덩이 안고  
미친 듯 울부짖으며 들끓던 바다  
산 그림자 입에 물고 가을로 가는 길  
물결이 강변 그리워하는 눈썹만한 외로움  
가슴 저며 오는 안부 그리워  
홀로 선 흰 그림자 날개를 펼칩니다.





2016년 가을호 Vol.6

## 말할 수 없는 비밀!

정요안 수사  
(호스피스 원목신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제 갓 사십을 맞이 했을 듯한 이 아들은 오늘도 호스피스 병실에 서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있었지요. 예전에는 제법 건장한 체격을 가졌을 법한 이 남자는 병상에 누워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눈물을 머금고 있는 어머니의 뒷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듯한 앙상한 체격의 이 사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늘을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하늘을 보고 싶다는 아들을 위해 침대를 돌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말 없이 창 밖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다소 차가워진 아들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당신의 하늘을 만져봅니다. 어머니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끼야... 내 하늘은 너여...!”

### 우원 안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후원에  
함께 하실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 은행계좌:

국민은행 004-25-0008-049

우리은행 019-272532-13-002

농협 047-01-253723

우체국 010017-01-002730

#### ♡ 예금주:

천주의성요한수도회

하늘을 보던 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늘에 있을께...!”

이곳에 있는 두 모자는 오늘도 이렇게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두 모자에게는 비밀입니다. 아마도 서로가 모르는 척 할 뿐입니다. 아들을 밝혀주던 생명의 빛줄기가 곧 꺼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 엄마의 하늘을 비춰주던 태양이 거의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와 아들은 어긋난 시선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병실에 함께 있던 내 마음에 들리는 슬픔의 눈물 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들이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말은 “사랑한다. 내 새끼!” , “미안해요. 울 엄마!...사랑해요!” 이 말이 아니었을까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이들에게만은 말할 수 없는 비밀...공공연한 그 비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호스피스 손님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비밀 아닌 비밀을 오늘도 원목자는 폭로하고 다닙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 호스피스 개원 19주년 기념 추모 미사



### 소진예방 프로그램

호스피스센터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의 소진된 에너지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 지난 4월과 5월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매일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북리딩 (book reading)을 통한 마음나누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20일, 저희 호스피스에서 사별하신 유가족들을 모시고 고인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호스피스에서는 매년 5월 중에 호스피스에서 임종하신 고인들을 위한 추모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대중교육이 지난 4월19일~20일과 6월24일~25일 2회에 걸쳐 진행 되었습니다.







# 센터 소식

2016년 가을호 Vol.6



광주 전남 지역 완화의료기관 자원봉사자 연합교육 (2016년 8월18일)

광주와 전남 지역 완화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천주의성요한병원을 방문하여 준비한 강의와 프로그램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기타 소식

7월6일 병원 서비스 질향상 프로포절 발표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이용한 주 돌봄자의 만족도 조사

9월2일~3일 2016년도 호스피스전문기관 연례집담회 참석 (서울)

9월8일 평화의 방(임종실) 시설 보완





## 사별가족모임 그리움도 행복이어라

‘그리움도 행복이어라’의 주제로 호스피스 사별가족모임이 지난 4월27일, 6월28일, 9월28일 3회기에 걸쳐 광주 천주의 성요한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사별가족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사별 가족 모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생을 통해 늘 크고 작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이별은 죽음으로 인한 사별입니다. 사별가족모임은 슬픔을 겪게 되는 사별 가족들이 상실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슬픔을 이겨 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천주의성요한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사별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임의 시기와 장소는 사별가족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초대장을 보내 드립니다.



### 미술치료요법 매주 화, 금요일

호스피스 손님들은 소외감, 고립감,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함 등 정신적인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질병이나 증상에 대처하는 것과 질병으로부터 주위를 환기시키고 기분전환이 될 수 있는 미술 활동을 제공하고, 창작활동을 통하여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천주의성요한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32

전화: 062-510-3071~2

[www.yohanhos.or.kr](http://www.yohanhos.or.kr)



**가정방문 호스피스**



**호스피스 원목실**



**♡ 호스피스는...**

여명이 길게 남지 않은 말기암 손님과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손님이 남은 여명기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을 말합니다.

**♡ 입원 대상자**

말기암 손님으로서 더 이상의 의료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  
통증 완화와 증상 조절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입원 절차**

▷ 손님 및 가족 직접 내원(소견서 지참)

▷ 전화 상담 의뢰 (☎ 062-510-3152, FAX 062-510-3151)

**가정방문 호스피스 대상자**

- 말기암 진단을 받은 분,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
- 노인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치매, 파킨슨씨 등), 뇌혈관 질환
- 상처 및 욕창간호,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손님

☎ 전화: 062-510-3120, 3153

**호스피스 입원 손님과 가족들을 위한 원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센터 미사 :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11시
- 천주교 세례를 받은 입원손님들을 위한 병자성사, 고해성사 등
- 영적 돌봄, 병자영성체(봉성체), 긴급한 세례(대세)
- 원목 사제와 수도자 면담, 영적 상담, 위로와 지지 등

